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 닫을 위기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7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따르면 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사업주인 조선대 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밝히 위탁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7명의 직원이 해고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 위탁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회가 있는 대학이나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선대 산학협력단 2년 초과 근로자 연장불가 전체 직원 10명 중 7명 해고하면 운영 불가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2012년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3년씩 위탁계약을 연장해 왔다.

문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고용기간 장기화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온 직원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불거졌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 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센터는 타 지역 근로자건강센터나 정부에서 위탁하는 유사 사업에서도 사업기간 동안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고용연장을 요구해 왔으나 조선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축적한 인적 역량과 사업관계망이 해체될 사항이어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기간제법이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바꾸는 상황에서 누구도 고용의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대의 단기근로자 채용은 대학의 적자운영과 맞물려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행했으며 올해도 적립금에서 300여원을 떼어내 사용해야 할 처지다. 고용불안이 지속되면서 조선대 내 다른 센터들도 잦은 이직과 퇴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대학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고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단의 사업은 법인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대만 동부 화롄 규모 6.0 지진 최소 4명 사망

대만 동부 화롄(花蓮) 부근에서 일어난 규모 6.0 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한 4명이 목숨을 잃고 225명이 다쳤으며 실종자도 145명에 달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화롄현 당국과 재해대책본부 등을 인용해 지진으로 무너지거나 기울 건물에 깔려 지금까지 4명이 숨졌으며 일본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225명이 부상해 주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지진은 전날 11시50분(한국시간 7일 오전 0시50분) 화롄 현에서 북동쪽 22km 떨어진 곳을 강타했다.

진앙은 북위 24.14도, 동경 121.69도이며 진원 깊이가 10.6km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 규모가 6.4이고 진원 깊이가 9.5km라고 발표했다.

이날 일대는 진도 7급의 강력한 진동이 일었고 난터우 진도 4급, 타이중과 윈인 4급, 타이위안 신주 타이둥 타이베이 지이 장화 마오리 타이안 3급, 가오슝 핑둥 핑후 2급 등 대만 전역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다.

이번 지진으로 화롄시 호텔 통하이 호텔(統帥大飯店) 1층이 무너지면서 기우는 등 붕괴하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대형 건물이 4동에 이르고 다수의 가옥이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렸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통하이 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 30명을 비롯한 투숙객 130명을 구출했다.

통하이 호텔에 2명을 비롯해 20여명이 피해 건물에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연력이 닿지 않은 실종자 중 상당수가 건물이나 가옥 밑에 갇힌 것으로 추정돼 구출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진 보고를 받고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해 행정원과 대만군에 구난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화롄 재해대책본부를 직접 방문 진두지휘하고 있다.

중앙기상국은 지난 4일 새벽부터 이제까지 규모 5.8을 포함해 130여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2주일 안에 규모 5 이상 지진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7일 오전 10시18분에는 화롄 현청 북북동쪽 15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4.4 여진이 내습했다.

진앙은 북위 24.11도, 동경 121.7도, 진원 깊이가 5km였다.

프랑스 파리 폭설 피해 확산...교통난 극심

프랑스 수도 파리 등 북부지역에 6일(현지시간) 쏟아진 폭설로 에펠탑이 잠정폐쇄되고 도로가 차단되는가 하면 기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24.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6일밤부터 7일새벽까지 파리 지역에서는 5~10cm의 눈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6일밤 파리 주변에 도로에서는 자동차행렬이 무려 약 700km나 이어졌다.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일반 버스와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는 눈과 강풍 때문에 고속철 테레브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리 시 당국은 7일 낮까지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승용차를 몰고 시내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파리 주변 도로의 대형 트럭 진입도 금지했다. 에펠탑은 기상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미 중부 해안지대에 가짜 쓰나미경보 전달

6일 아침(현지시간) 미 중부 해안지대와 멕시코만, 카리브해 일대 주민들의 휴대 전화기에 가짜 쓰나미 경보가 전달되면서 이후 민간 기상예보 회사와 미 국립 기상청(NWS)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날 쓰나미 경보 메시지를 받은 주민들에게 기상청은 정지 점검 도중에 약간의 오류로 잘못 나간 경보라고 해명했다. 국립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날 아침 8시 30분께 테스트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인기 높은 민간기상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전화사용자들은 이를 쓰나미 경보로 받아들였다.

기상청은 테스트 메시지가 어떻게 가짜 쓰나미 경보가 되어 버렸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6시 40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기상청의 코드 오류로 인해 진짜 쓰나미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대변인을 통해서 민간 회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립 기상청의 수전 부커너 대변인은 기상청 조사 결과 월 정기점검시 보낸 테스트 메시지의 코드는 정확히 입력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상청이 "어쨌든 일부 민간 회사의 시스템이 기상청의 코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회사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어린이집 석면 조사 의무화 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만 법적용을 받아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사였다.

실제로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개소중 1136개소(41%)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되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석면해체작업작업 감리인 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석면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흰개미 잡는 탐지견 7일 경기 수원시 화성에서 흰개미 탐지견과 에스원 탐지견센터 관계자들이 목조문화재를 훼손하는 흰개미가 있는지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

한파에 저수지 '뽕뽕'...산림청 진화용수 확보에 '진땀'

산림청이 계속 되는 한파로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에 두꺼운 얼음이 생기면서 진화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경남지역의 저수지마저 상당수가 얼어 산불진화용 담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부산 기장군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산불도 주변의 담수지가 결빙, 헬기 담수를 위해 산불현장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는 등 진화에 큰 불편을 겪었다.

산림청은 헬기 진화시 담수지가

지의 거리 5km 증가할 때마다 공중진화 효율이 18%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져 저수지의 저수율이 60% 미만인 지역이 많아 산불진화용 취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남 밀양댐과 충남 보령댐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며 전남은 평균 저수율이 58% 수준으로 전국 평균 저수율 70.3%를 크게 밑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가뭄으로 인한 산불진화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된 간이 취수시설 47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취약

지역 저수지에서 담수를 위한 일용개기와 담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진화용수 확보에 노력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진화용 담수지를 확보토록 지시하고 이동식 저수조를 보급하는 등 진화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건조경보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 산행 시 흡연·인화물질 소지 행위 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fare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